

# 이도 저도 아닌 석단 디자인 이제 그만 사라져야

## 석단(2) ... 나쁜 사례

한국사찰에서 석단이 중요한 경관요소라는 것은 석단이 나타나는 빈도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전통사찰에 축조된 석단을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석단 디자인에 관련된 것으로 디자인이 똑같은 석단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디자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찰이 가진 지형적 특징이나 석단이 축조되는 장소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사찰을 확장하거나 과거의 석단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축조되는 석단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사찰경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재료·기술·형태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재료상의 문제

전통사찰에 도입된 석단의 재료는 자연석이 일반적이었다. 그것도 사찰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무거운 돌을 운반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산 속에 자리한 사찰들의 경우 못생기고 작은 돌을 가지고 석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찰주변에서 구한 돌은 그 사찰의 다른 요소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흙이나 나무, 돌의 경우 환경이 같으면 색채나 질감에서 유사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축조되는 석단의 재료는 지난날 결정적인 한 계로 작용했던 운반으로부터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석재를 사용한 석단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가 있다. 물론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구입비가 적게 드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항토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것은 한국 고유의 경관을 만드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돌을 어떻게 가공하여 쌓을 것인가의 문제도 재료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지난날 능침수호사찰과 같은 원찰에서 볼 수 있었던 석단의 장대석처럼 잘 다듬어 쌓을 것인가 아니면 면만 골라서 쌓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작은 돌을 주워서 구조적 안정성만 고려하면서 쌓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석단의 경관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돌을 가공하여 석단의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때문에 과도하게 돌을 다듬어 사용한다면 지주형의 기단, 계단 혹은 담장에 사용한 돌과 전혀 다른 생김새를 만들어 석단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부조화현상이 발생해 전통사찰의 경관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 기술상의 문제

돌 쌓는 기술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각 나라의 사찰경관을 차별화하는 원인이 된다. 뒷채움은 무엇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하고, 아랫돌의 크기는 어떻게 하고, 위에 쌓여지는 돌과의 접합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리고 석단의 수직고와 경사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와 같은 다양한 기술상의 문제는 석단의 디자인을 다르게 만드는 절대적인 요인이 된다. 부석사 불국사 화엄사 해인사 봉선사 용주사의 석단은 축석기술이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구조적 안정성을 기하고 자연석 소요량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을 치고 그 위에 돌을 붙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연석 석단에서 나타나는 장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백화현상이 나타나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강토옹벽을 사용해서 석단을 만드는 경우까지도 볼 수 있

는데, 이것은 사찰의 경관적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지혜롭지 못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 양식상의 문제

석단의 양식은 사용하는 석단의 높이나 길이, 석단에 사용하는 돌의 색채와 질감, 돌의 크기와 형태, 가공의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석단의 양식을 달리 만드는 이러한 제한 요소들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일 것이다. 특히 주변의 경관요소 가운데서 돌을 사용한 것이 있거나 기존에 축조된 석단이 있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새로 도입하는 석단의 양식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 전통사찰에 새로 축조한 석단 가운데에는 다른 사찰에서 디자인한 석단을 흉내내거나 지나치게 화려하고 과도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뚱맞은 석단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석단들은 석단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찰경관 전체에 영향을 미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석단은 사찰에서 중요한 경관요소인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석단이야기는 전통사찰에 도입되는 석단에 대한 것이다. 최근 도시에서 새로 지어지는 현대사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만약 현대적 디자인에 의해 건축된 건물이나 조경요소들이 지배하는 현대사찰에 깊은 산속에서나 볼 수 있는 석단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기능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경관성 측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현대적 개념의 도시사찰의 경우에는 그러

## 불교적 상징성 담보된 경관 위해선 의식변화와 디자인 보는 안목 필요

한 디자인에 어울리는 석단이 만들어져야 어울릴 수 있다는 말이다. 노출콘크리트 건물이나 벽면에 화강석을 붙인 건물이 주요소가 되는 사찰에는 역시 그러한 재료와 어울리는 현대적 재료, 현대적 공법에 의해서 석단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석단이 되는 것이다.

흔히들 전통의 창조적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하곤 한다. 건축이나 조경분야에서 현대사찰을 디자인할 때 건물은 어떻게 디자인하여야 하고 조경은 어떻게 디자인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경험도 있다. 그러나 전통의 창조적 계승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다. 기능성이나 장소성이 현대적이라면 사찰의 디자인도 역시 현대적이어야 하는데, 스님들이나 신도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현대적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 전통사찰과 현대사찰은 디자인적 접근 자체가 달라야 한다. 각각의 사찰이 담당해야 할 기능이 다르니 디자인이 같은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동의한다면 전통사찰의 석단에서는 전통성이 표현되어야 하고, 현대사찰의 석단에서는 현대적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디자인은 이제 더 이상 사찰에서 실현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사찰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일은 남아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교적 상징성이 담보된 경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상징성은 꼭 전통적인 디자인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적 재료, 현대적 공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부대중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디자인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석단의 기본 전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다. 위 사진처럼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재료의 사용은 사찰 경관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기획PR]

“돌아가신 영가들에게도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진정한 천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영가 강원교육 실천도량 慈悲禪院



밀양 상남면에 자리한 자비선원에서 영가들에게 스님들이 교육받는 강원교재를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흔히 영가천도는 영가를 통해 불보살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영가가 왕생극락하기를 발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영가에게 강원교육을 하고 있다니 그에 대한 궁금증을 원장인신 벽암스님에게 들어본다.

### 영가 강원교육이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제자지를 위한 불교대학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 대상이 돌아가신 영가라는 것과 교재가 스님들의 강원교육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황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무엇이든 처음 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2년 전부터 우리 절에 모셔져 있는 영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변 스님들의 반대도 많았지만 내에 대한 소신은 더욱 견고해지고 신도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 영가 강원교육만으로 천도가 이루어지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요. 우리들도 한번 교육받았다고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가들도 인연에 따라 깨치는 영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영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매일 초하루와 보름에 합동 천도재를 봉행하고 수시로 큰스님들을 모시고 법문을 청하여 영가가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해서 안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공부시켜서 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반 재가불자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신도들도 영가와 마찬가지로 구분 없이 강의를 합니다. 다만 신도들은 절에 와서 강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거리상 직접 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교재와 강의 테이프를 보내드립니다. 각자 테이프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게 있으면 절로 전화나 메일로 질문하면 답해드리고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집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기간은 매일 2-4시간씩 1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영가 강원교육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몇 년 전부터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문득 영가들은 천도재를 지내면 모두 천도가 이루어지나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천도가 이루어지겠지만 혹여 천도되지 못한 영가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화두로 남더라고요. 마침 신도들에게 불교교리를 교육하고 있으니 이 내용을 영가들이 알면 천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저와 인연 있던 영가가 나타나 부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 고맙다고 하면서 배를 타고 떠나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잠을 깬 후에도 그 모습이 확연히 떠올라 잊혀지지 않게 됐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신도들의 시연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죽는 날까지 계속 할 것이며 또 다른 스님들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慈悲禪院 원장 벽암 합장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 ☎ 055)391-3014, 3004



① 발파석을 사용한 석단 ② 일본식 돌쌓기 방식으로 축성한 석단 ③ 전통양식으로 보기 어려운 석단 ④ 전통사찰에 도입된 보강토옹벽 ⑤ 불국사 석단의 아류 ⑥ 무국적 양식의 석단